

“군민 복지 최우선...하반기 100원 택시 63개 마을로 확대”

민선 6기 2년 설계
전 동 평 영암군수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현장중심의 서비스 행정’,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섬김 행정’을 더욱 강화해 풍요로운 군민행복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기치로 일반행정과 농업, 복지 등 8대 분야 66건의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전 군수는 ‘하나된 군민’을 위해 하드웨어 사업보다 군민을 위한 생활기반 사업, 작으면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위민행정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또 교통 취약지 주민들을 위한 ‘100원 택시’ 시범사업과 65세 이상 목욕비 지원 등 ‘복지영암’ 실현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올 하반기부터는 ‘100원 택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63개 마을 전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목욕비 지원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이·미용 사업

영어 원어민 초등학교 파견 지원
국립종자원 정선시설 유치 성과
대불공단 등 일자리 창출 박차

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일등 교육군(郡)’을 목표로 도내 군단위에서 가장 많은 56억 여원의 예산을 편성, 영어 원어민 초등학교 파견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 군수는 “‘복지 영암’을 조성하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성장동력 확보”라며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을 만들어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전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물러와 영암에서 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지난 6월 확정된 국립 종자원의 비 보급증 정선시설 유치다. 국비만 250억원을 투자해 정선공장과 사무실, 관리실 등을 조성하게 되는 사업으로, 국비 규모나 기대효과 면에서 민선자치 최대의 성과로 꼽고 있다.

군은 영암 특화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전국 500대 식품산업 관련 기관과 기업을 수시로 방문해 투자유치 상담을 벌이고 있다. 이미 해조류 가공산업인 ㈜해미푸드 등 7개 기업과 18개 블록, 320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군은 일자리 창출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현대 산호중공업과 대불공단의 업체들과 MOU를 체결하고, 입주기업들의 고용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에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전 군수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해에만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114억원, 특별교부세 16억여원을 확보했고, 올해들어 정선시설 유치 250억원을 포함해 386억여원, 총 516억여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민선 6기 영암군 신성장 산업은 농업과 문화관광산업이다.
군은 농업의 6차 산업화와 홍보마케팅 전략 강화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도사업으로 ‘무화과산업 특구’ 조성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중소 농업인을 위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다. 또 금정 대봉감, 미암 황토고구마, 학산 낙지요리, 군서 장류식품들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우 사육농가들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도 내년부터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도록 일출산과 천년고찰 도갑사, 왕인박사유적지와 도기박물관, 기찬랜드와 가야금 테마파크 등을 연계해 영암을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가야금 테마파크’의 객사를 신축하고, 국민여가 캠프장과 독천 ‘음식 테마거리’ 조성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영암군은 민선 6기 1년동안 기초생활보장 부분 대통령상 등 복지분야 8관왕과 경관환경분야 콘테스트 대통령상, 지방세수증대 유공평가 최우수기관 등 35개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다. 전 군수 역시 ‘2014 창조경영인 대상’과 ‘2014 아시아 문화대상’, ‘한국 신지식인협회 공무원분야 신지식인 선정’ 등 영예의 수상이 이어졌다.
/영암=문병성기자 moon@



지난 4일 문화복합형 시장 ‘강진 오감통’ 개장식을 찾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강진군 제공>

문화복합형시장 ‘강진 오감통’ 개장 흥행몰이

이틀동안 3000여명 다녀가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공연도 즐기고 특별한 한 끼를 드세요!”
맛과 멋, 흥을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형 시장인 ‘강진 오감통’이 지난 4일 개장해 흥행 몰이에 나서고 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4~5일 이틀 동안 3000여명이 ‘강진 오감통’에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강진시장과 오감통을 찾은 관광객들은 야외 광장에서 펼쳐지는 런치콘서트를 즐기며, 먹거리 장터와 한정식 체험관을 둘러 강진의 먹거리를 즐겼다. 또한 떡갈비와 수제소시지, 족발, 두부, 바비큐장 등 길거리 음식을 선보였다. 무명 가수촌에서는 가수들의 공연이 잇따랐다.

강진권 군수는 “인근 무안 등 대기업의 복합 쇼핑몰이 지역상권 침해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살리고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조해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문화를 만드는 역할상을 시도했다”며 “앞으로 ‘강진 오감통’이 상생의 시장, 문화창조의 혁신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강진시장 맞은편 부지 7684㎡에 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먹거리 타운과 한정식 체험관, 무명 가수촌, 야외 무대 등을 갖춘 ‘강진 오감통’을 개장했다. 특히 시장에 음악을 결합한 무명 가수촌을 전국 최초로 시도해 연중 노래와 음악이 흐르는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청자공모전 대상에 김상용 작가 ‘청자상감화문발’

전통·디자인 부문 25점 입상

‘제15회 대한민국 청자 공모전’에서 디자인 부문에 출품한 김상용(여수시) 작가의 ‘청자상감화문발’(사진)이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상금 1000만원)을 차지했다.
전통부문 최우수상(전남도지사상)은 박병조(강진군) 작가의 ‘소통(가제)’, 디자인부문 최우수상은 김유성(강진군) 작가의 ‘청자계영배와 인퓨저’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청자공모전은 전통 부문과 디자인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대한민국 명장도자사와 도자재료, 디자인 분야 등 각 분야별 위원 5명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청자 태

토와 유약을 사용해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 독창성을 살린 작품 25점을 입상작으로 결정했다.
대상 작품은 지구를 의미하는 둥근 ‘발’ 안에 세계 여러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 평화와 화합을 기리는 의미의 간을 만들고 각 칸마다 들꽃무늬를 음각해 안쪽은 동양적인 기본 상감을, 바깥쪽은 서구적인 코발트 기법을 응용한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통부문 최우수상 작품은 전통문양인 솟을무늬를 양각으로 시문한 뒤 다시 한꺼풀 파내 연당초 문양을 상감기법으로 장식했고, 디자인부문 최우수상 작품은 현대적 디자인과 돋보이는 다기 구성, 탁월한 발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입상작품



은 오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진청자 박물관 디지털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선보인다.
한편 ‘제43회 강진 청자축제’는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9일간 강진군 대구면 청자요지에서 열린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마량 서중 어촌체험마을 일등 어촌계로 선정

강진군 마량 서중 어촌체험마을(위원장 강남원)이 최근 어촌체험 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에서 일등 어촌계로 선정됐다. 선정된 전국 8개 마을 중 전남에서는 유일하다.
해양수산부와 한국 어촌어항협회가 주관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 심사 제도는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를 촉진해 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어촌 관광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시행됐다.
올해는 등급심사 첫째로 전문가 현장심사단이 경관과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총 5개 부문에 대한 등급을 심사했다.
이번 평가에서 서중 어촌체험마을은 성공적인 여름 휴가철 개막이 및 갯벌 체험축제 개최를 비롯해 해양 펜션과 낚시바지선 운영과 바지락·꼬막 캐기, 굴 캐기, 수제 김 제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발·운영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중 어촌체험마을은 지난 2013년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등 꾸준히 등급 및 공모 사업을 준비해왔다.
한편 서중 어촌체험마을은 강진 청자축제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막이 행사와 갯벌 체험축제 등을 마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청자 비색’ 재현할 최고의 화목가마 장작꾼 찾아라

내달 5일 장작패기 대회

강진군, 20일까지 참가 신청

강진군은 1500년 전 신비의 비색(靑色) 고려청자를 재현하는 최고의 화목가마 장작꾼을 찾는다.
강진군은 오는 20일까지 ‘전국 화목가

마 장작패기 대회’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축제 개최 이래 처음 전국 단위행사로 진행될 이번 대회는 도지전공 학생을 비롯한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3~5명이 한 팀이 되어 총 100팀(500명)이 열띤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대회는 8월 5일 오후 1시 청자축제장 설무대 앞에서 열린다.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매일”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 지방지사 (061) | | 시내지국 | |
|------------------|--------------------|--------------|----------|
| 광 산 062)944-0444 | 남 원 시 063)626-1601 | 광 천 366-8375 | |
| 군산시 063)467-2500 | 순 창 군 063)653-0444 | 남 광 222-9440 | |
| 정읍시 063)531-5544 | 서울보급소 02)313-5962 | 남 부 652-0175 | |
| | | 동 광 264-2012 | |
| | | 동 명 222-9054 | |
| | | 동 문 225-6001 | |
| | | 백 운 267-4748 | |
| | | 봉 선 673-4698 | |
| | | 북광주 675-6530 | |
| | | 상 무 525-3761 | |
| | | 서광주 372-2352 | |
| | | 송 하 369-0583 | |
| | | 신 안 676-6805 | |
| | | 양 산 512-1732 | |
| | | 오 치 571-7658 | |
| | | 웅 부 266-7601 | |
| | | 우 선 522-7752 | |
| | | 윤 천 512-8116 | |
| | | 문 곡 371-9818 | |
| | | 중 광 961-2339 | |
| | | 충 앙 222-1896 | |
| | | 진 월 224-6804 | |
| | | 첨 단 673-1600 | |
| | | 장 평 973-2900 | |
| | | 치 평 224-8212 | |
| | | 풍 암 376-6511 | |
| | | 하 남 682-8112 | |
| | | 화 정 959-1500 | |
| | | | 375-9662 |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